

센다이 미디어테크

せんだいメディアテーク

건축 메모
 개관: 2001년
 설계자: 이토 토요
 주요 특징: 튜브, 플레이트, 더블스킨 구조

모니카 캡삼 (미국)

조젠지도리를 걸으면 거리에 늘어선 느티나무를 생생하게 비추는 센다이 미디어테크의 현대적인 유리 건축물이 보입니다. 센다이 미디어테크에서는 전람회장 외에도 다양한 오픈 스페이스가 있어서, 언제라도 둘러 편안히 쉴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인 이토 토요 씨가 설계한 건물의 플로어, 벽, 그리고 그 외 디테일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문자 그대로 중층적인 경험...

특징의 하나가 건물을 지탱하는 엘리베이터를 내보내는 유리 '튜브'입니다. 5번 튜브 내 나선계단으로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것을 특히 추천합니다. 유리로 각종의 모습을 확인하고, 보고 싶은 곳이 있으면 들을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즈 체어
 각층에는 유니크한 디자인의 다양한 의자가 있습니다. 쉬고 싶을 때는 마음에 드는 의자를 찾아보세요!



유리 벽 너머로 조젠지도리의 아름다운 느티나무 가로수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각층에서 다양한 각도로 계절의 변화와 함께 바뀌는 경치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는 테이블'에서는 테이블, 의자 그리고 벽이 철판으로 되어 있어, 어디나 분필로 써넣을 수 있습니다! 디스커션을 하기에 최적의 환경입니다! *이름 시 예약이 필요합니다.

숨에 들리면 언제라도 아트 관련 기념품을 살 수 있습니다! 도호쿠의 전통 공예품에서 현대적이고 세련된 상품까지 한자리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숨 옆에 있는 카페의 아이스 코코아나 벨기에 맥주도 추천합니다.



MAP
 히로세 강, 니시 공원, 카페 호른 (2F), 가정요리 '이노우에' (3F), 센다이 미디어테크, 'MerryMerry Christmasland' 집회점, 중국요리 '도류문' (도쿄 일렉트론 홀 미야기 2F), 조젠지도리, '술의 도시' 센다이를 상징하는 조젠지도리는 전체 길이 700m의 느티나무 가로수길입니다.

Museums Tailored to You

자신의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 다면적이고 자유로운 뮤지엄 체험

이번호에서는 다양한 스타일로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뮤지엄을 소개합니다. 각각의 뮤지엄의 특색 있는 건축이나 공간, 그리고 컬렉션을 통해 여러분의 흥미·관심에 맞는 뮤지엄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야기 현 미술관

宮城県美術館

건축 메모
 개관: 1981년
 설계자: 마에카와 쿠니오
 주요 특징: 회유식 중정과 정원

데이비드 도노반 (영국)

미야기 현 미술관은 센다이의 랜드마크의 하나인 히로세 강 근처에 있는 타일로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다양한 미술품이 있으며, 그 대부분은 미야기 현과 연관 있습니다. 정원은 꼭 봐야할 장소이며, 많은 조각과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습니다. 미술관 내에는 멋진 레스토랑도 있으며, 여유롭고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미술관 컬렉션에는 센다이 근교 명승지인 마츠시마의 유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화라는 형태로 일본의 경치를 보는 것은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컬렉션
 일본화, 서양화, 판화, 조각 그리고 공예품을 중심으로 칸딘스키나 클레와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의 작품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현인 갤러리는 지역 예술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것 외에도, 그 작가들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맛있는 과일 타르타나 이 지역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한 요리 등을 레스토랑 카페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선정적 배치에는 세심의 주의가 기울여졌으며, 스타일리시하고 안락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카페 오후 2시부터



멋진 예술로 가득한 산책...

엘리스의 정원에는 어린이와 동물을 테마로 한 매력적인 조각이 매우 많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조각은 방문객에게 특히 인기가 있습니다. 맑은 날에 정원을 산책하면 아주 편안하고 좋은 기분이 듭니다.



센다이 시 역사민속자료관

仙台市歴史民俗資料館

건축 메모
 1874년 준공, 1945년까지 70년간 병사로 이용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미군이 주둔했습니다.

알리세 도네레 (라트비아)

센다이 시 역사민속자료관은 센다이 역 동쪽에 있는 츠츠지가오카 공원 안에 있습니다. 공원을 걸으면 보이기 시작하는 19세기에 세워진 아름다운 회색 벽의 건물이 그 뮤지엄입니다. 이곳에서는 몇 세대가 전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오래된 도구를 전시하고 있으며,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옛날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코너는 아이들과 함께 둘러보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아주 아날로그한 느낌입니다!

민속자료관은 140년 전에 세워진 구 병사입니다. 옛날 병사의 생활을 재현한 방도 있습니다.



아직 전기가 별로 보급되지 않았던 50년 전 도구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손으로 돌리는 세탁기와 목탄을 넣어 사용하는 다리미의 실물을 손에 들고, 50년 전 생활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무수의 옛날 사진
 이 뮤지엄에 오는 도중에 지난 도로를 마차가 다니던 모습 등의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장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도 그 시대 생활양식이나 문화에 따라 도구는 다양합니다. 모국에서는 본 적이 없는 물건도 매우 많았습니다.



일본의 학교 급식은 매우 건강에 좋고 맛있게 보입니다. 어릴때 먹던 것을 떠올리며 배가 고프면 근처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Other Voices

이번엔 세사람의 이야기 밖에 소개할 수 없었으나 센다이 거주 외국인인 뮤지엄을 즐기고 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미야기 현 미술관

특별 전시 이외에도 사토 추로 기념관이나 현인 갤러리 등 볼거리가 많은 것에 놀랐습니다. 넓고 웅장한 정원이나 건축물을 볼 수 있어 최고였습니다.

이 선희 (한국)



센다이 시 역사민속자료관

이 뮤지엄의 뛰어난 점은 메이지 시대 건물을 통해 보존해 민속자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입니다. 특별 전시에서는 일본의 계절 습관이나 도구에 관한 자료를 보고 일본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 제나엔 주 (아메리카)



센다이 시 역사민속자료관

쉬운 일본어로 전쟁 체험에 대해 쓰여 있는 그림책 낭독과 그림 연극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우 락 (중국)

Information

【센다이시 박물관 임시 휴관 안내】
 2014년 12월 1일 (월) ~ 2015년 3월 27일 (금)

센다이 시 박물관에서는 관내 개수공사 및 국제연합 방재 세계회의 개최에 따라 2014년 12월 1일(월)부터 2015년 3월 27일(금)까지 휴관하고 있습니다. (전시실뿐 아니라 레스토랑, 뮤지엄 숍과 1층 정보자료센터를 포함한 전관이 휴관됩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URL <http://www.city.sendai.jp/kyouiku/museum/> (일본어만)



센다이·미야기 뮤지엄 얼라이언스(SMMA)에 관하여
 센다이·미야기 지역의 다양한 박물관이 공동의 지적 자원으로 협동함으로써 지역에 있어서 유익한 기능을 획득해 가기 위한 공동 사업체입니다. 각 관의 학예원이나 전문직원이 가진 지식과 노하우를 집적하고, 분야를 횡단하는 연계 이벤트, 학교 교육에 대한 협력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재의 육성지원, 관광자원의 개발 등 단체의 박물관으로는 실현 곤란한 새로운 가치의 창출을 실행하고, 지역의 요구에 맞는 신시대의 뮤지엄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문의: 센다이·미야기 뮤지엄 얼라이언스 사무국
 우)980-0821 센다이시 아오바구 가쓰가마치 2-1 (센다이 미디어테크 내)
 토, 일, 공휴일은 휴무
 Tel: 022-713-4483
 Fax: 022-713-4482
 (일본어만 대응 가능)
 URL: <http://www.smma.jp>

